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재건축

Seoul National Hospital Modernizing Reconstruction

당선작 / 정현화 정회원 · 임영수 정회원
(주. 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30-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거주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주 용 도 의료시설(병원)
대지면적 40,450.3㎡
건축면적 9,315.85㎡
연 면 적 53,553.91㎡
건 폐 율 32.55% (법정 : 60%이하)
용 적 률 138.81% (법정 : 200%이하)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발 주 처 국립서울병원
설계담당 조진희, 김현아, 김홍열, 김미정

계획개념

국립서울병원은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현재의 부지에 단계별로 재건축하는 국가정신건강병원 건립공사로, 기존의 병실개념의 병원공간구성을 탈피하고 가정과 같은 거주공간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질환의 특성에 따른 간호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하며 질환의 종류, 상태, 연령에 따라 적합한 치유환경의 제공으로 쾌적하고 진보적인 국가의료시설이 되도록 계획했다.

배치계획

대지는 동쪽 25m도로와 북측 7m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동측 25m도로를 기준으로 약 6m 단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8m도로 끝부분에 중곡 전철역이 위치해 있다. 기존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공사가 가능한 배치계획을 제안하며, 7m일방통행로는 8m도로로 확장하고 중곡역에서 동쪽 25m에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했다. 1단계 공사에서 병동 및 지원시설, 주차장을 확보하고 2단계에서 외래진료 기능이 추가되도록 계획했다. 병동을 거주공간 개념의 3개동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거주동을 투명한 개방공간으로 연결시켰다. 재활부와 연계하여 체육관, 운동장, 원예정원, 온실이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평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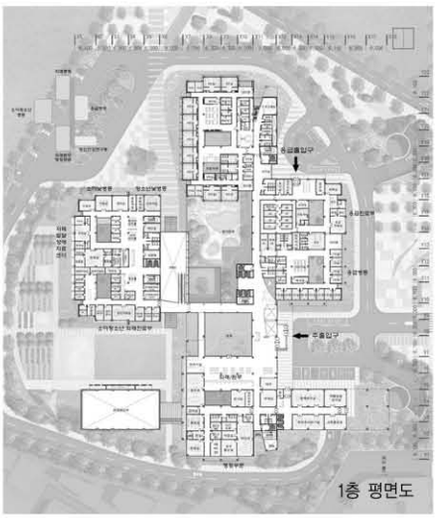
기존병원을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공사가 가능한 배치계획을 제안하며 거주개념의 공간체계를 사적(private)공간, 반 사적(semi-private)공간, 반 공적(semi-public)공간, 공적(public)공간으로 세분화 하여 정신질환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통제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병동은 6.0×6.3 module을 적용하여 쾌적한 거주공간이 되도록 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가변성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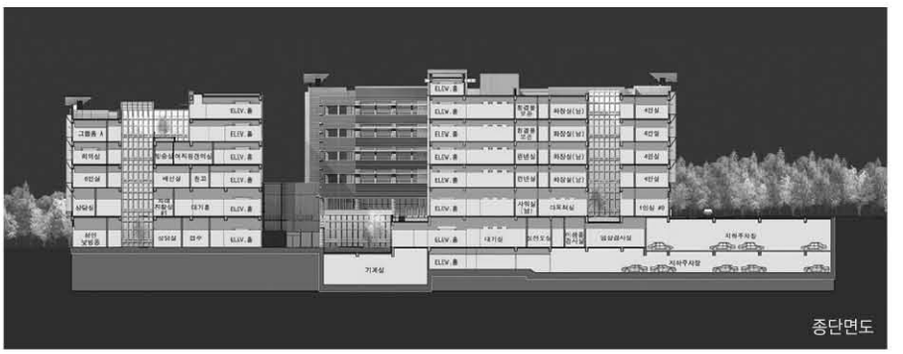
동선계획

차량 동선은 25m도로에서 진입하여 단지 내를 순환할 수 있는 6m도로를 계획했으며, 단 차이를 이용하여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계토록 계획했다. 보행자는 중곡역과 25m도로에서 각각 접근하여 아트리움의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단 차이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입면계획

25m도로에 길게 배치된 매스는 병동에 의해 분절시키고 기존병동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며 3개의 거주동은 매스감을 부여하고 연결된 개방공간은 밝은 공간이 되도록 유리로 처리하여 새로운 성격의 병원이 되도록 계획했다.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재건축

Seoul National Hospital Modernization & Redevelopment Project

우수작 / 김동주 · 전영성 정회원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윤세한 정회원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상문 정회원 (주.본디 건축사사무소)
+ 권순정 (아주대학교)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30-1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대로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주요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대지면적 40,450.30㎡
건축면적 12,437.34㎡
연 면 적 53,971.33㎡
건 폐 율 30.75% (법정 : 60%이하)
용 적 률 102.44% (법정 : 200%이하)
규 모 지하 1층, 지상 8층
발 주 처 국립서울병원

Healingtophia-사회적 소외자들의 소우주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신병원은 스트레스클리닉, 수면장애클리닉 등 평소에는 병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분야까지 자체 프로그램으로 흡수하는 등 격리와 금기의 병원 이미지를 탈피하여 생활 속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게 되었고 우리는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병원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새 국립서울병원은 다음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개념으로 하여 계획되었다.

포용(Embracement)

이 곳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세계로서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그들을 포용한다. 저층부 외래동의 자유곡선형은 기존의 딱딱한 기성병원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다.

개방감(Open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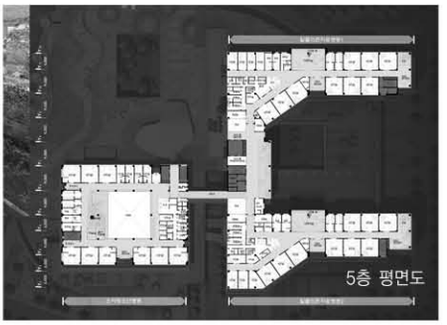
병원은 자체 완결성을 갖고 동시에 주변 커뮤니티와의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곳곳의 관입된 중정을 통해 개방된 공간감을 형성하여 자연과 융화된다. 병동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개방감 형성의 장치들은 치유의 과정과 맞물려 '개방속의 치유' 라는 모토를 실재화한다.

거주성(Dwelling)

거주형병동과 관리형병동으로 분리하여 병동 내 기능실들을 집중, 분산, 관입의 원칙에 따라 성격적으로 분리 · 재배치함으로써 거주성을 높이는 한편 치유과정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효율성(Effici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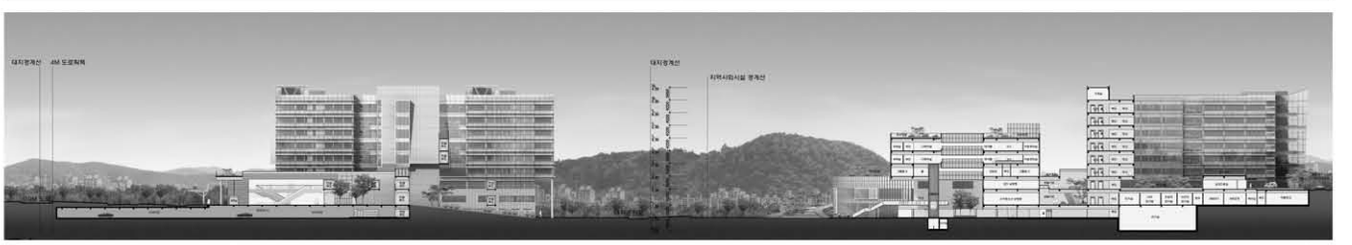
외래, 병동, 행정 · 연구, 중앙공급 · 서비스, 정신건강연구원 등 병원을 구성하는 각 부문간의 유기적 조닝과 명쾌한 동선계획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단계적 재건축과정과 장래증축계획을 수립한다.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재건축

Seoul National Hospital Modernization & Redevelopment Project

가작 / 심재호 정회원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30-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주요용도 병원시설
대지면적 40,450.30㎡
건축면적 10,245.96㎡
연 면 적 54,020.82㎡
건 폐 율 25.33%
용 적 률 95.73%
규 모 지하 2층, 지상 10층
발 주 처 국립서울병원
설계담당 원형준(총괄), 지혜진, 김조은, 등유욱, 김은호, 조현준, 최성환, 이영선

이 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의 포디엄과 타워로 형성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컨텍스트에 의해 형성된 볼륨들과 다양한 외부공간, 내부의 휴식공간들이 전체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계획안으로, 정신치료기능과 더불어 재활병동의 기능, 나아가 연구, 교육 기능의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치유병원이다.

다양한 위계의 내, 외부 산책공간은 배회공간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최적화된 치유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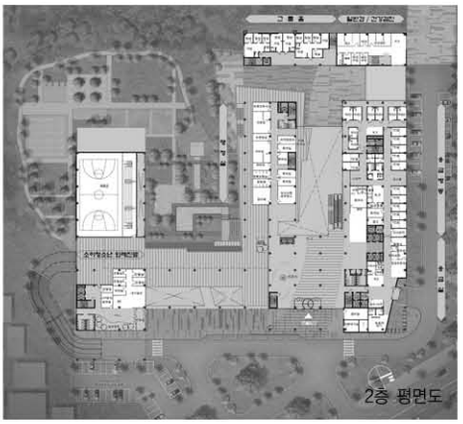
특히 의도적으로 비워낸 외부공간에 풍요로운 녹지 '숲' 공간의 배치는, 인근 산의 풍경과 연계된 녹지체계의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어,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도 고려하였다.

병동부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오픈된 녹지공간을 두어 인근 주택지와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한다. 이러한 배치시스템을 기본으로 볼륨들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유지하며, 복합 프로그램들의 기능적 연계뿐만 아니라 볼륨들의 조합으로 전체 디자인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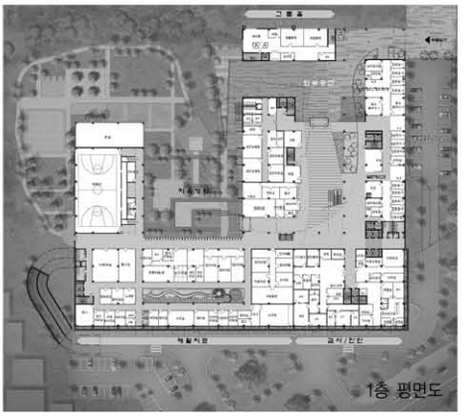
이렇게 도출된 볼륨들의 디자인은 주변 컨텍스트와 내부의 프로그램들에 의해, 좀 더 세밀하게 분절 및 위계화된 형상을 만들어 매스의 무거움을 탈피하고 역동적인 운동감을 나타낸다.

병동부와 연구동 볼륨사이에 만들어진 내부 공공공간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연계하는 내부 홀을 통해 합리적인 동선과 풍부한 공간감을 연출하며, 볼륨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비워진 공간들은 다양한 외부 녹지공간 및 내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환자들의 치유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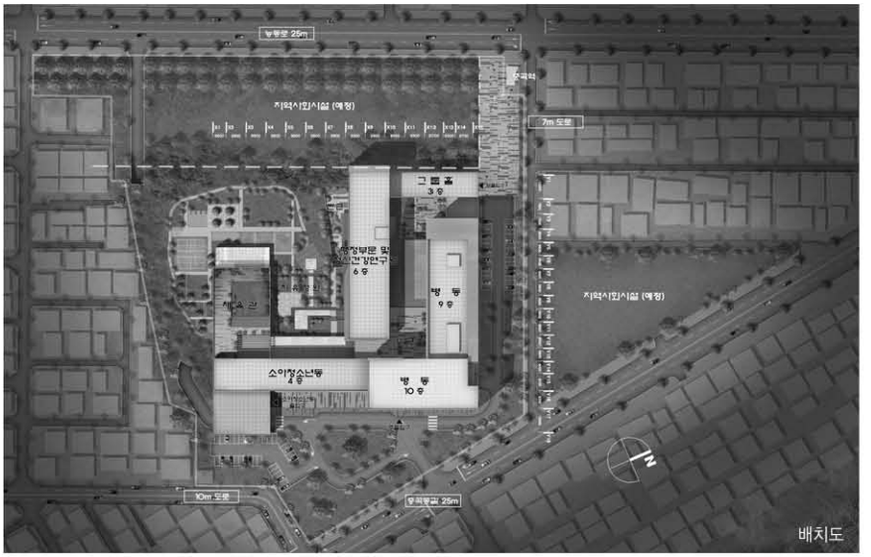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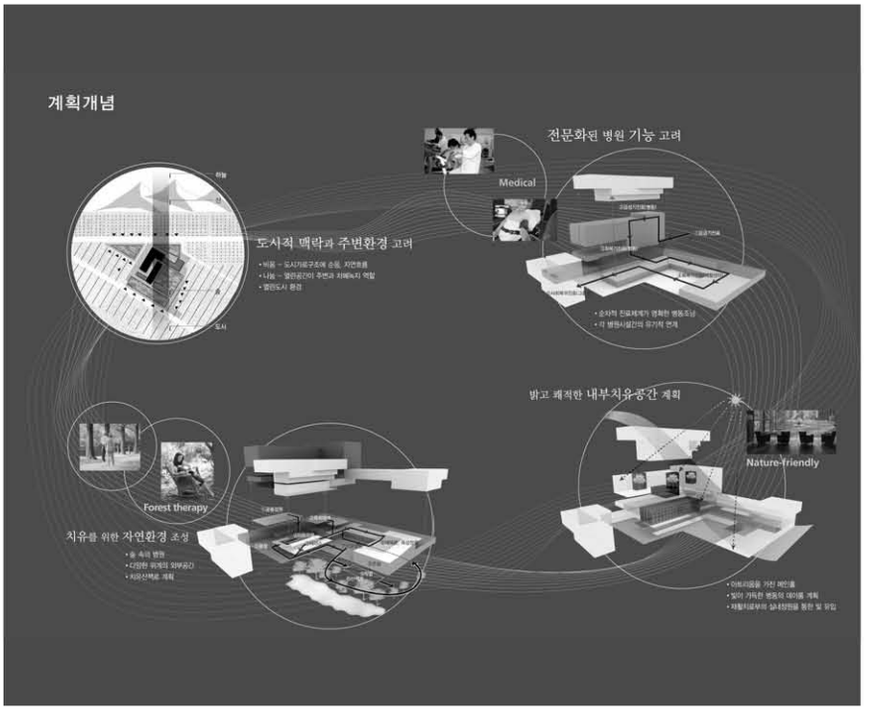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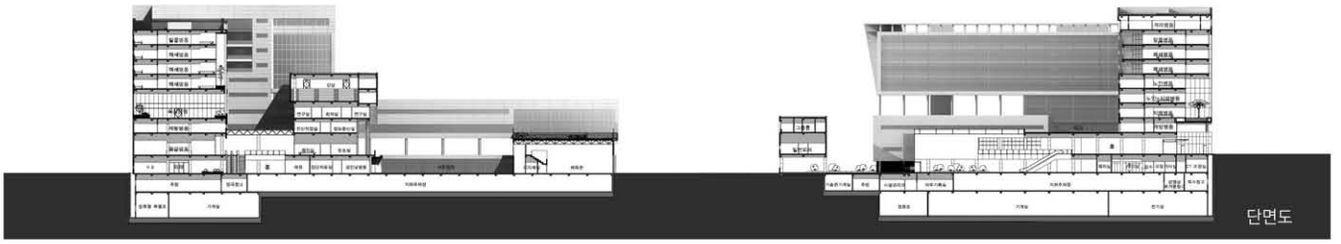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